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June 13, 2019 Vol. 675

## 영 김 전 의원, 美 연방하원의원 향한 성공적인 캠페인 시작



2020년 다시한번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영 김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하원 입성이 유력해졌다가 개표 막판 역전을 허용했던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2020년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 주 39선거구에서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7일, 로렌드 하이츠 소재 STC 센터에서 커뮤니티 리더와 후원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첫 번째 펀드레이징을 시작하며 39선거구 연방하원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프레드 휘태커 오렌지 카운티 공

화당의장, 밥 허프 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요라 린다 시장 타라 캠벨을 비롯해 다이아몬드바 시의원 루스로우, 애너하임 시의원 트레버 오닐, 아카디아 시의원 피터 애머슨 및 각 지역 통합 교육국 대표와 이사장들이 참석해 김 전 의원의 연방하원

출마를 적극 지지했다.

김 전 의원은 미국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인종과 성별,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지지와 후원을 호소했다.

프레드 휘태커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의장은 “김 전 의원은 2018년 선거 캠페인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승리의 목전까지 갔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김 전 의원이 39지구에서 당선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밥 허프 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김 전 의원은 오랫동안 의회를 위해 일하며 지역구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라 린다 시장 타라 캠벨은 “김 전 의원은 내가 아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고, 그녀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변화 시킬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캘리포니아 39지구는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등 3개 카운티가 속해 있으며, 한인 밀집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아시아계 유권자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은 약 3천 여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셔,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투표가 더욱 중요할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이주한 한인 1.5세로, 미국 연방하원 내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공화당 소속 애드 로이스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남가주 지역에서 20여 년간 함께 일해왔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전통 공화당 당원으로 책임감 있는 회계정책, 사업체에 대한 중점적 지지 및 보수적 사회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당당한 이민자로서 근면과 자조, 가족 중심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있다. 김동욱 기자

## 분당우리교회 부목사 설교 논란... 이찬수 목사 “양해 부탁”

동성애 관련 내용에  
비판일자 사과문 올려

최근 분당우리교회 한 부목사의 동성애 관련 설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부목사는 7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담임인 이찬수 목사까지 이를 날 그 사과문에 댓글을 달았다.

부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동성애 자체가 아닌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며 “전제는 동성애 관련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질서에 따라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퀴어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반응들을 찾아보았다는 그는 “결론은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는 것”이라며 “솔직히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소위 막말로 꾼대들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퀴어축제 앞에서 드러누워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

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며 “그게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어 버렸다.

오늘날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자신들 밖에 모르고 태협하지 않으며, 자신들 밖에 모르면서 악 쓰는 그런 이미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왜 꾼대 소리를 듣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동성애와 같은 낯선 충격 같아 보이는 문제에는 난리들을 치고 있으면서 성경이 사실은 동성애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저지르



분당우리교회 한 부목사가 논란이 된 동성애 관련 설교를 했던 당시 설교 영상 이미지 ©분당우리교회 설교 영상 캡처

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

[13면에 계속]

## 고수익,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예배 : 오후 5:30
- 금요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213)364-7289, (213)605-1983

##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목회자 초청 설교 세미나

영혼을 살리는 설교!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시켜주는 설교!

여기 교회개척 18년동안 오로지 설교로 교회부흥에 전념하여

출석교인 500명을 이룬 한 설교자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한다.)

교회부흥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설교에 관심있는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 로텍스호텔 세미나룸 (Olympic + Gramercy Dr.) 3411 W. Olympic Bl. L.A CA 90019

대상 : 목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 평신도 지도자

회비 : 무료 (선물, 점심제공)

주관 :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후원 : 남가주목사회, 총신대학교남가주총동문회, 남가주여성목사회, 미주복음방송, BIZPOST그룹, 이음카페

강사 채동선 전도사

(마가교회 담임)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개최된 미주여성코랄 시리아 난민 돕기 28주년 정기 연주회

## 미주여성코랄 시리아 난민 위해 사랑의 선율 노래해

28주년 정기 연주회 성황리 개최

미주 여성 코랄(지휘: 오성애, 반주: 김주영)이 터키 시리아 난민을 위해 개최한 28주년 정기 연주회가 지난 8일, 바이올라 대학교 크로웰 랜싱 리사이틀 훌에서 전 좌석을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 여성 코랄 '새로운 영을 창조 하소서', 'Joybells', '주께 찬양', '노래 할 이유 있네', '도라지 꽃', '내 맘에 강물', '밀양 아리랑' 등 찬송가, 민요, 가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큰 박수를 받았다.

특별 출연한 남성합창단 오렌지 미션파이어(지휘 장진영)는 '주 음 성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 선조의

주'를 불렀고, 이어 소프라노 젠 이, 테너 전승철이 솔로와 듀엣 곡을 불러 박수 갈채를 받았다.

오성애 지휘자에 따르면 이번 공연을 통해서 모금된 기금은 선교단체 'SWM' 소속으로 15년째 터키에서 활동하는 김진영 선교사에게 전달돼 시리아 난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연주회는 양코르 요청이 두 번씩이나 나올 정도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다음 공연을 기약했다.

한편 1991년 창단된 미주여성코랄은 지난 2017년에 한국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국립합창단이 개최한 '한민족 합창축제'에 초

청받아 예술의 전당에서 국립합창단과 협연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엔 뉴욕 카네기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글로벌 콰이어 콘서트 무대에 서기도 했다.

4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미주여성코랄은 매년 정기 콘서트를 열어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모금',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지원' 등 한인 사회 각계 각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미주여성코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바인 베델한인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다. 연주회 또는 단원 가입 문의는 전화(951-733-8151)로 하면 된다.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답도다”

기쁜우리교회 효도관광,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하는 보배 같은 선진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사역부(송의용 장로) 주관으로 6월 8일(토) 어르신 130여 명을 모시고 풍광이 빼어난 카시타즈 호(Lake Casitas)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강경수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경건회에서 김경진 목사는 이사야 11장 6절-9절을 본문으로 “자연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며 기쁘게 하나 되자”고 말했다.



기쁜우리교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사역부(송의용 장로) 주관으로 6월 8일(토) 어르신들 모시고 Lake Casitas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교회 관계자는 “기쁜우리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은 기도로서 본인이 되고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하는 보배 같은 선진들이다. 기쁜

우리교회가 지향하는 함께 소통하고 같이 협력하는 신앙이 이번 경로관광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장학생 모집

### 1.5세 2세 영어권 신학생 대상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 1.5세 또는 2세 영어권 사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서 신학 공부 중인 1.5세나 2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목회학 석사(M.Div.)과정 및 박사(D.Min.)과정 입학 예정자나 재학생, 신학 공부를 위한 (M. Div 및 D.Min. 제외) 대학원 과정 입학 예정자나 재학생이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어서 “이 시대 코리언 아메리칸 교회를 볼 때, 나는 미래의 목회자로서 또는 신학자로서 어떤 고민과 사명 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2-3페이지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업과 사역 현장에서의 추천서 각 1부, 가장 최근 학교의 성적 증명서, 입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7월 13일(토)까지며 이메일 [tfpcpcusa@hotmail.com](mailto:tfpcpcusa@hotmail.com)로 만 접수한다.

## 내가 힘든 이유, 혹시 노인 우울증인가?

### 소망 소사이어티 노인 우울증 주제 LA 소망 교육 세미나 개최

소망 소사이어티(유분자 이사장)

LA 지부는 “제 2차 소망 교육 세미나”를 오는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LA 지부 사무실(3030W Olympic Blvd, #207)에서 ‘노인 우울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라 고 원장은 노인성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 두는 강의를 진행했었다.

이번 2차 소망 교육 세미나는 “사라 고(Sarah Go; NP, 더불어 정신 건강 클리닉)”원장이 강사로 나서 ‘노인 우울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사라 고 원장은 노인성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20명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참석을 원할 경우, 반드시 소망 소사이어티 LA 사무실(213-908-5034)이나 이메일(somang@somangsociety.org)로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를 미리 작성

## 샬롬장애인선교회

### 제 20회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

1999년 6월 LA 코리아타운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 섬겨온 샬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6일과 8일 각각 감사예배와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를 갖고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봉사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족 야유회는 예배와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장애인 가족과 봉사자들이 하나돼 휴식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모세 목사는 “지난 20년 동안 남가주 한인 지역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 비장애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센터를 운영, 훈련 등 의료보조기구들을 공급, 장애인 가족 장학금 수여 등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불들고 지구촌 장애인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Grace Mission University**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ABHE TRACS CHEA

ATCSCC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	--

## 기독교 상담학부 공개강좌

주제 : “진정한 나를 찾자”

일시 : 2019년 6월 22일(토) 오전 9:30~오후 1:00  
장소 : 그레이스 라이브러리 GL1 강의실  
대상 : 목회자 부부, 신학생, 평신도 및 상담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 강좌1

참 자아발견을 통한 중독치유

(술, 마약, 도박, 인터넷, 성, 종교중독 치유)

권오균 교수(Rev. Paul Kwon, Ph.D.)

주정부 인정 중독치유 상담사 : CATC-V; LAADC-CA

- 풀라신학대학원박사(Ph. D.)

### 강좌2

“나라는 넌 누구나?”

(육하는 성질 치유)

리디아 전 교수(Lydia Chun Psy.D.)

- 개인 임상심리학 박사, BIOLA

\* 참석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은 입학금 면제 혜택

LA Extension 강의 센터 운영 (3020 Wilshire Blvd, LA, CA 90010)

• 찾아오는 길

W. Commonwealth Ave

W. Valencia Dr S. Brookhurst St

## 2019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mailto:admissions@gm.edu) [www.gm.edu](http://www.gm.edu)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 1920~30년대의 교회 상황 (II)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김익두(1874~1950)는 황해도 안양(安岳) 출신으로 장사를 했으나,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난봉꾼이 되었다. 장에 가는 장꾼들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갈 할 정도로 그의 난봉과 행패는 극심했다. 그는 어느 장날 여자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녀에게서 전도지 한 장을 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였다. 김익두는 스월른(W.L.Swallow) 선교사가 수행 차 안악에 와서 '영생'(永生)이라는 설교를 할 때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는 처음 성전을 받기 전에 신약성경을 백 번이나 읽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를 그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은 후 재령 명신(明新)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그 때도 기도를 많이 하여 '기도 선생'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다. 29세에 황해도 재령 교회 전도사가 되었고, 1906년 평양 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 제3회로 졸업하였다.

한번은 심방 갔다 오다가 마을 공동 우물처마 밑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쳤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김익두는 자기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믿고 더욱 기도와 신앙생활에 힘써 하나님으로부터 신유(神癒) 은사를 받게 된다. 그를 가리켜 "초기 부흥운동에 기사이적이 나타나서 사도행전의 기사를 20세기에 재현하였다."고 김린서는 기록하였다.

김익두 목사가 신유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1919년 12월 경북 달성(達城) 현풍(玄風)교회 사경회 때였다. 그 지방에 아래턱이 쳐져 올라붙지 않는 장애인이 있었다. 그는 말도 못하고 음식도 씹지 못하여 누워서 물과 함께 넘기는 가련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교인이었다. 그가 김 목사의 사경회에 나왔을 때 김 목사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몇 날을 기도했으나 낫지 않았다. 김 목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더니 그 장애인의 늘어진 턱이 올라가 붙고 불구된 지 10년 만

에 "좋다, 좋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김 목사의 이적 기사 집회에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기 시작하였고, 각색 병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 받는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났다. 경산(慶山)읍 교회에서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 중풍병자와 혈루병자가 나음을 얻었으며, 대구 집회에서도 수백 명의 병자가 치유를 받았다. 부산 집회에서 앉은뱅이가 걸고, 김해군 진영리(進永里)에서는 23년 된 혈루병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며, 평양에서는 11년간 병 어리 된 여인이 김 목사의 기도로 허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적 기사가 속출하자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황해도 재령(載寧)의 임택권(林澤權) 목사가 1919년 '이적 명증(明證)회'를 발기하여 3년 여 동안 조사한 김 목사의 이적 사실을 1921년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책자로 발간하였다. 또한 황해노회는 1922년 장로회 총회에 헌의하기를 장로회 헌법 정치 3장 1조에 "금일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 되었느니라."라는 조항을 수정할 것을 헌의하였다. 총회는 이 안건에 대해 신경과 성경진리에 위반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각 노회에 회부하였는데 그 결과는 부결이었다.

이 일로 김 목사의 신유 부흥집회는 고비를 맞게 되었다. 팽배되어 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김 목사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 기독교인들에게 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자들은 신유의 집회를 통해 결신자들이 늘어나고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기만 있지 않았다. 1926년 김 목사가 간도 용정(龍井)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일단의 폭도들이 철근을 휘두르며 공격하여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그가 담임했던 서울 남대문교회 지식층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기독교 신앙을 미신적 신앙으로 끌어내리고 병을 고친다며 우매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매도하였다. 이는 확실히 반 기독교운동의 일환이었으며, 엄연히 성경이 말하는 성령 치유의 은사를 정면으로 거절한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증좌였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대중들에게 김익두는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3·1 독립운동 실패 후에 희망을 잃은 민중들에게 삶의 용기를 북돋아 준 그 시대의 예언자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 주신 위안의 메신저였다. 그가 이끈 사경회가 776회요, 설교가 2만 8천회, 교회 신축이 150처, 그의 감화로 목사 된 자가 200명, 치유 받은 자가 1만 명이 넘었으니, 그의 생은 한마디로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 그는 30년대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기를 들어 모진 곤욕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해방이 된 후에 이북에서 강양육(康良昱)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친 공산 정권 기독교 단체인 '조선기독교연맹'에 가입하여 초대 총회장이 됨으로써 그 명예에 흙칠을 하고 말았다. 한국 전쟁 발발 후 1950년 10월 14일 유엔군들에게 쫓겨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 김 목사를 교인 6명과 함께 사살함으로써 그는 공산당 어용단체에 협력하고도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 본지 주관 마가교회 채동선 전도사 초청 설교 세미나 개최

오는 6월 24일(월) 오전 10시 엘에이 로텍스 호텔

본지가 주관하는 채동선 전도사 초청 설교 세미나가 오는 6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엘에이 로텍스호텔 세미나룸에서 진행된다.

채동선 전도사는, 18년전인 2001년 LA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하여 출석교인 수를 500명으로 성장시킨 목회자로, 복음의 본질과 핵심, 우리 영혼의 상황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한 설교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교회 공간을 여러 단체에 무료로 제공하며 교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등 새로운 행보를 걸어왔다.

목회자 세미나에 관한 모든 문의는 기독일보 전화 213.739.0403으로 하면 된다.

엘에이 로텍스 호텔 주소 :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 한인가정상담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성황

"후원금 6만 달러 위탁가정 도울 예정"



한인가정상담소는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지난 5월 31일 개최한 '제1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에 약 100여 명 참가자와 25여개 후원사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알버트 김 뉴커머셜캐피탈 대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랑나눔'을 주제로 개최했으며, 이날 조성된 후원금 6만불은 위탁가정을 돕기위한 비용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한미은행과 웰스파고 은행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며, 농심, 자연나라 등이 후원했다.

행사를 주최한 알버트 김대표는 "커뮤니티를 위한 행사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단체들을 함께 발굴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후원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Enrolling K-9 for Summer Program  
June 3 to July 26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툰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20TH ANNIVERSARY

Now Serving K-3 at New Campus!

S. Highland Ave

Wilshire Blvd

HYUNDAI

&lt;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15회&gt;

## 2019 실크 웨이브 미션의 킹덤 아웃리치 보고(2)

(먼저 지난 주 현지인 교회 개척자 지원 가정을 28유닛이라 했는 데 38유닛(가정)으로 정정한다)

지난 주 칼럼을 읽고 독자인 한 목사님이 연락을 했다. 섬기는 교회가 200명 정도 되는데 자신이 3대 부임 목사라 했다. 전대부터 이어서 해 온 남미 선교지가 있어서 매년 방학이 되면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 중심으로 한 주간 다녀오는 것이 교회 선교의 전부라고 했다.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은 있으나 어찌해야 할지 염두가 나지 않는다고 조언을 구했다.

필자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제일 먼저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이 같은 비전을 나누기를 권했다. 모범적으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의 지역 선교 전문가를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다.

선교부흥집회를 열어 멀리 전문 선교사의 강의를 온 교우가 함께 듣고 말씀을 통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다. 곧 한 선교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라 했다. 실크웨이브 미션은 “킹덤스쿨”이라고 하는 선교 전문 강사들이 훈련하는 교회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이번 킹덤 아웃리치도 그 킹덤스쿨을 참여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다녀왔다. 아웃리치 보고를 이어 가겠다. 교회연합팀으로 구성된 팀은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사역자들이 개척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도와 치유사역, 어린이를 섬기는 사역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 지금 말 못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에겐 자신들을 찾아 주는 이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격려가 되고 살 소망이 생길 수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찾아주는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고난을 이겨낸다. 종동에 현재 이란과 아프카니스탄의 부흥을 시작으로 이집트, 레바논, 터키 등의 교회들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집트팀은 킹덤스쿨을 수료한 성도들로 구성된 한 교회의 선교팀이었다. 씻타 옥토버 지역의 어린이학교에서 사역을 했던 보고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사건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너무도 괴로운 표정과 함께 소리치며 손을 내저었다. 이유가 있었다. 아이들은 시리아에서 IS의 만행을 보았었다. 목을 자르는 장면, 무참히 짓밟아 죽이는 장면, 자기들의 가족, 이웃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 참혹한 경험을 한 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들으면서 다시 떠오르며 고통스러워 한 것이다. 즉시 이집트팀은 그들을 안고 기도하면서 같이 울면서 그들을 위로했다. 간신히 아이들이 진정되었고, 그 아이들의 치유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 또 한 팀은 터키의 데니즐리 지역의 이란과 아프카니스탄 난민교회 사역을 하였다. 이런 난민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돋는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엄청난 펍박과 고난을 겪으며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이란교회는 시리안들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같은 아픔으로 돌보고 있다. 이제 그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고 동역하며 이슬람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들이 많이 참여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 때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들, 그중에 가장 견고한 성과 같은 이슬람권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서야 할 때이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20대에 참 행복을 깨달은 케이티 데이비스

케이티 데이비스(Katie Davis)는 유복한 집안에서 엄친아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소녀였습니다. 테네시 주 내쉬빌 지역에 강남 8학군과 같은 브랜트우드지역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부자 동네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서 성적도 아주 우수하였고, 학생회장으로 리더십도 발휘하는 유능한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딸로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고, 잘 생긴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는 12학년(한국 기준으로는 고3) 여름방학 때 3주간 우간다의 고아원에 단기선교를 갔습니다. 밤 늦게 숙소에 도착 후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온통 새까만 얼굴들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이 백인 소녀를 신기하게 구경하였던 것입니다. 케이티가 눈을 뜯을 것을 보고 일제히 미소 짓는 입술사이로 반짝이는 흑인 아이들의 하얀 치아를 보는 순간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 1년만 봉사를 하고 대학에 가겠다’고 부모님을 조릅니다. 진지한 딸의 요청을 부모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케이티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우간다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새까만 눈동자의 천사들을 찾아 그들을 섬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다섯 살 난 스코비아가 케이티 데이비스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물습니다. 초롱초롱 반짝이는 눈으로 묻는 스코비아의 질문에 스무 살의 케이티 데이비스는 숨이 막혔지만 그녀는 “YES”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그녀는 이름 뿐이 아닌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고 스코비아를 입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엄마 케이티는 어느새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의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미국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오니 자꾸만 예수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몸이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미국에서는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가면 해결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우간다에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으로 달려가 사먹으면 됩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면 우간다에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엄마나 친구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우간다에서는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는데 미국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없어 되는 미국 생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정을 조정해서 우간다로 돌아갑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참된 행복을 깨달은 것입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는 세계를 깨우는 멋진 삶을 삽니다. 필자의 딸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우간다로 간다고 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정과 삶에 박수를 보내며 축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요 영원한 기쁨을 불자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간다에서 도와야 할 아이들이 400명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모금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에서의 삶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 제 1차 원포인트 드라마틱 강해설교 세미나 열린다

제 1차 LA지역 원포인트 강해설교 세미나가 오는 7월 29일(월)부터 3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든스위트 호텔(Garden Suite Hotel)에서 열린다.

원포인트 강해설교란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로,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설교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비결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사로 서는 신성숙 교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M.Div.)을 공부하고,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구약학 신학석사(Th.M), 칼빈신학교에서 신약학 신학석사를 공부했으며 남아공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는 “한국 강단의 문제를 극복할 설교의 대안을 찾는 후학들에게 그의 설교 세미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00이며, 사전등록시 \$90로 할인된다. 이틀간 호텔식 점

심식사와 강의안이 제공된다. 대상은 신학생, 목회자, 사모, 선교사이다. 이번 설교 세미나는 카이로스 미니스트리 아케데미(Kairos Ministry Academy)가 주최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후원한다.

문의: 818-200-3807(Jay Lee 간사)

가든스위트 호텔 :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0000)

## 제 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4th Joint Youth Retreat

믿음에 굳게 서서  
STAND FIRM  
IN THE FAITH

기간 : 2019년 7월 22일(월)-24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대상 : 6-12학년 중등부 및 고등부 (2019년 9월 기준)

등록 : 6월 21일(금)까지 (선착순 100명)

신청 : [www.lafgc.com](http://www.lafgc.com)

문의 :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Tel: 951.928.4415 / Email: [lafgced@gmail.com](mailto:lafgced@gmail.com)



Scan me

#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브리서 10:32-39



## 본문 하브리서 10:32-39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 너희가 간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윤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그 자리에 그냥 두면 곧 멸망겠기에 구원을 목적으로 멸망할 자리에서 옮겨놓았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죄악 세상에 불의와 죄악에 휩쓸리며 죄악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계속했다면 여러분들은 곧 멸망할 입장뿐이라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 갈 자격을 갖추라고 뒤로 물러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일단 교회에 왔다는 것은 소망적인 비전을 허락받았다는 입장에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듭나라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3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나다는 것은 인생의 깨질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성품적인 것까지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의 신앙 성장이 더디게 되고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염려를 끼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계약인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 날부터 믿음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달음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알아 자신의 형편이 이로 인하여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의 깨달음이라면 그 인생이 그 시간부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가지 기대만 거는 신앙으로 바꿔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

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절반 이상이 이런 미신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라는 것은 뒷전이고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고 반겨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11 이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잇길을 지나오실 때 문둥이 열 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동안 그들의 몸을 다 고쳐주신다는 약속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취급을 못 받는 천형(天刑) 환자들이었습니다. 혹 이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능력으로 문둥병 고침 받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니도록 모세의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던 도중 그들의 몸이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열 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육신의 문둥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찌든 영혼까지 하늘의 영생복락의 후사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이기적이고 염치도 예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을 살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절이 들면 그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라면 전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사명의식으로 인내하며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단계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인 예수님의 사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는 놓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 인생의 옛 습관을 틋아 놓은 생활을 계속하니 예수님의 그 사람의 주인행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둘째로는 수고한 사람의 뜻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다고 하지만 어떠한 부담이 자신에게 지워지면 묘한 구실과 핑계를 대며 기피하려는 상황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적 철부지 신앙에 결실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하게 하자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한 희생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닌 주님만을 위하여 그 분의 모든 입장에서 서서 그 분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어야 우리 믿음은 비로소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고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간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 세상의 육신으로 원하는 조건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고 따라서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 소망, 하늘의 확실한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환란과 펍박, 고통,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과 재산을 빼앗기고 명예와 지위를 빼앗기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조건이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의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자기백성으로 인정되어야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의 보장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신앙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내 입장은 앞세워 예수님을 피하여 관계 맷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윤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 본문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그리스도 왕국 확장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음으로 영광스러운 결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주일 오전 8시/동영상 설교 제공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R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https://www.youtube.com)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꿈을 펼치는 대학 사명을 이루는 대학

### 조지아센추럴대학교 남가주분교 배움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지아센추럴대학교(GCU)는 미 연방교육국(USDE) 및 고등교육협의회(CHEA)에서 인증하는 북미주신학대학협의회(ATS)의 정회원 신학교육 기관으로 1993년에 교육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어 지난 27년간 미주 한인들의 신학교육과 아프리카 등지의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2019년 6월에 GCU 남가주 분교를 시작하여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개 세미나

청교도신학과 그리스도인의 삶  
6월 17~18일(월,화) 오전 10시~오후 5시

#### 오덕교 박사

- 총신신대원, MDiv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D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역임
- International University of Ulaanbaatar 총장 역임
- GCU교회사 객원교수

복음의 진수 로마서 강해  
6월 20~21일(목,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최갑종 박사

- 고신신대원, MDiv
- Iliff School of Theology & University of Denver, PhD
- 백석대 총장 겸 신약학 교수 역임
- GCU 신약학 교수

#### 감사예배 & 리셉션

####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며 환영합니다

6월 19일(수)

오전 11:00 ~ 오후 1:30

#### 신대원 인тен시브세미나

성경해석의 원리와 적용  
6월 24~29일(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 황진기 박사

- 총신신대원, MDiv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 Fuller 한인목회학박사원 원장 겸 신약학 교수 역임
- GCU신학대학원 학장 겸 신약학 교수

\* 공개세미나는 등록비(점심식사비 포함)가 매 세미나당 50불입니다. 사전등록시 50퍼센트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신대원 인тен시브세미나는 신대원 학위과정 입학 절차를 거쳐 코스워 학점으로 등록시에 등록금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공개세미나 온라인 등록과 신대원 과정 입학 및 인тен시브세미나 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cuniv.edu](http://www.gcuniv.edu))를 참조 바랍니다.



GEORGIA  
CENTRAL UNIVERSITY

GCU SOUTHERN CALIFORNIA EXTENSION SITE

2100 S. Stimson Ave. Hacienda Heights, CA 91745

남가주분교 디렉터: 김병학 박사 213-392-0409, claykim@gcuniv.edu

본교 입학처 : 770-220-7905, admissions@gcuniv.edu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 가능

#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PCUSA 학원목회 연구회 컨퍼런스가 열렸다.

## “청년들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자”

### PCUSA 한인교회 학원목회 연구회 개최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 학원목회 연구회 주최로 지난 3~6일 2019년 학원목회 연구회 컨퍼런스가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조은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 전역의 캠퍼스 타운 목회자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며 청년 선교의 해답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개회예배 강사로 나선 임성철 목사(데네시 트라이시티한인교회)는 ‘좋은 토양을 준비하자(눅 8:4-15)’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학원 목회의 결실은 좋은 영적 토양에서 나온다”며 “인위적 부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청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NCKPC 총회장 최병호 목사는 “신임 총회장으로서 학원 목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원 목회를 감당하는 교회들이 하나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

임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후 시간에는 무디 신학교와 제4장로교회를 방문해 신학교육과 목회 현장의 열기를 직접 체험했고, 시카고 건축물 투어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도 가졌다.

수요일 밤 학원목회 연구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임은숙 목사(위스콘신 매디슨 한인장로교회), 코디 노재왕 목사(일리노이 샌페인-아바나 한인교회)가 선임돼 새 임기를 시작했다.

임은숙 목사는 ‘은혜와 평강(엡 1:1-2)’이라는 폐회예배 설교에서 “사람의 뜻을 구하고 사람 중심의 학원 목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학원목회가 되자”고 전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또 미국 전역에 흩어진 350여 캠퍼스에서의 PCUSA 한인교회 청년 목회를 돋고자, 추수감사절 기간 연합 청년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대웅 기자

## “44년 전통 트렌턴장로교회, 전통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



트렌턴장로교회 5대 담임으로 위임된 최치호 목사

뉴저지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뉴저지 트렌턴장로교회가 최근 성공적인 리더십 교체를 통해 4대 담임이자 36년간 이 교회를 담임했던 황의준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40대 젊은 목회자인 최치호 목사가 5대 담임으로 위임됐다.

트렌턴장로교회는 1대 담임 흥성현 목사(1975~1979), 2대 담임 나채운 목사(1979~1981), 3대 담임 유상학 목사(1981~1983) 등 이민교회 초기에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대거 거쳐갔던 이민교회로 40대 젊은 목회자의 새로운 담임 부임에 교계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최치호 목사 일문일답.

–젊은 목회자로서, 전통이 깊은 이민교회 담임을 맡게 된데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

44년 역사의 트렌턴장로교회는 남부 뉴저지의 대표적인 이민교회로도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통성이 강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좋은 전통들을 유지하면서 현재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는 무엇인지 살피며 더욱 건강한 교회로 이끌고자 한다.

보통 트렌턴장로교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지 2만평에 아름다운 성전이 갖춰져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 트렌턴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심이 큰 곳이다. 이런 신앙의 기본 토양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건강한 교회다. 성도들의 영적 요구에 맞춰 더욱 말씀과 기도에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하려 한다.

–교회에 있어 장단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야기 해달라.

저는 장기적으로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 선교라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꾸준한 노력과 기도로 트렌턴장로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7월 담임으로 사역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이다.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들이 많이 있다. 가정에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에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다.

김대원 기자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삶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백송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높고 푸른 영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예배 오후 11:00  
평신도 리더십 훈련 예배 수 오후 7:00  
밀도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LA 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자리예배) 오전 6:30  
3부예배(자리예배) 오전 11:30  
대한현대EM 오후 2:00  
수요봉보기도(주) 오후 7:00

김기섭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소나무처럼 푸른 영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223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 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Youth예배 오후 11:00  
토요연합새벽 예배 오후 6:0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세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7:0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엘리야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5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기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세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맑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여정예배 오후 12:30  
천안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191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세벽예배(토) 6:00(토)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자용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후 6:30(화~금)  
오전 6:00(토)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기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8:00  
세벽예배(화~토) 10:3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5기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정세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벽기도회(화~토) 10:30  
유년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새한교회  
하나님에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 www.lasahe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어부 유동부 및 10:50  
세벽예배 오후 6:30(화~금)  
중고등부 오후 11: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곽건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후 11:15  
중고등부 오후 10:00  
유년부 오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화) 오후 6:00

예은장로교회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3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세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 www.wpcjesus.com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세벽예배 오전 5:20(월~금)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icdeew@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8:30  
세벽예배(화~금) 10:30  
금요예배(화~금) 7:30  
3부예배 오후 1:00  
토요예배(화~금) 6:00(화~금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Youth 주일학교 오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부학부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213) 381-9490

주일부예배 오전 8:00 E(MC대,침)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기독교주일 모전 10:00 새벽기도회 오후 6:30(화~토)  
중고등부 모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전체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삶,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구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동부, 라스 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금요) 오후 5:30(화~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월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아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례 받아 함께 일려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 예배 오전 9:40 대체침례부 오후 2:00  
3부 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화~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체침례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화~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asaram.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밀집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금) 5:30(화~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마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1) 966-9191

1부예배 오전 9:15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금요이야기 예배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밀집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금) 5:30(화~토) 오전 6: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마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오전 6:30(화~토)  
중국어성도방문 오후 7:30(화~금)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7:30半  
중국어성도방문 오후 7:30(화~금)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7:30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15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금요이야기 예배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밀집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월~금) 5:30(화~토) 오전 6:0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시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고등부 예배(월~금)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10:30 한인행장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전 7:30  
유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토~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예배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예배 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6:00(화~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화로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bdk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 예배(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성도집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체孚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1951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 363-5887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0: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T. (818) 363-5887 / www.l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0: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 박찬주 전 대장, 첫 교회 강연 “고난이 준 7가지 교훈”

##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그 때를 기다려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강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11일 오전 온양온천감리교회(담임 정병한 목사)에서 강연했다. 기독교인인 그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처음으로 교회 강단에 올랐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공관병에 대한 그의 소위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혐의가 추가됐다. 갑질 의혹과 관련된 직원남용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부하 중령에게서 보직 청탁을 받고 들어준 혐의는 유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장은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병에 걸린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고향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부하 중령의 부탁을 듣고 들어준 것”이라며 “그와 식사 한 번 한 것도 없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하를 위한 조치였고 그에 대한 책임도 기꺼이 질 각오”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제목은 ‘시국강연회’였다. 박 전 대장은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느끼고 깨달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주로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고는 그 신앙과 믿음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가 그 상징”이라고 했다.

박 전 대장은 “나도 그런 고난을 겪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현역 시절, 군사 전략가로 명성을 쌓았다. 육사 동기들 중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이었다. 그런 내게 교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하나

## 한동대 장순홍 총장, “내가 창조를 믿는 5가지 이유”

### ‘다음세대 미래교육’ 포럼서 ‘창조신앙’ 강조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이 10일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양재캠퍼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기독교의 다음세대에 ‘창조 신앙’을 잘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4/14원도우한국연합과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이 ‘다음세대 미래 교육·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동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기조연설했다.

장 총장은 기독교의 당면 과제로 △성경 권위 위협 △생명 경시 풍조 △전도 선교 약화 △사회적 인식 추락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꼽으면서 기독교의 교육 및 목회의 방향으로 △창조주 하나님 신앙 회복 △복음전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경 창세기 1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창조를 믿지 않는 게 참 비극”이라며 “창조인지 진화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목사가 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건 곧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자인 자신이 창조를 믿는 이유로 5가지를 꼽았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대학원 핵공학 박사인 장 총장은 카이스트 공학부 원자력공학과 교수

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정부가 수여하는 과학기술상장을 창조장을 받았다.

장 총장이 밝힌 5가지 이유는 ①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는 것 ②물질에서 저절로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 ③중간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④모든 생명체는 설계됐다는 것 ⑤이 우주와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완벽히

## 데이비드 플랫 목사, 트럼프 대통령 위해 기도한 후 논란



데이비드 플랫 목사. ©남침례회 제공

### 성도들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 가장 우선

얼마 전 예배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그후 발생한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남침례회 총회를 앞두고 앨라배마 버밍햄에서 열린 목회자 콘퍼런스에서 8복에 관한 설교를 전한 데이비드 플랫 목사는 “설교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로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순간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왕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인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이었다”고 전했다.

플랫 목사는 “복음이 우리를 연합하

게 한다”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강단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인들 중 일부는 이번 일로 기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고, 이 두 가지 반응은 곧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날 밤 성도들이 이번 일을 오해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차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 이후 SNS에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될 줄 몰랐다. 전국 TV 쇼 출연 문의가 쇄도했다”고 털어놓았다.

강혜진 기자

## 버지니아비치 총격 사건서 목회자 아들 동료들 구한 후 숨져 생존자들 “이렇게 빨리 떠나선 안 되는 사람”

최근 미국 버지니아비치 시(市) 청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라이언 키스 콕스(Ryan Keith Cox)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목회자의 아들이자 시청 회계사로 근무하던 그는 사건이 벌어지자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동료들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비치 시청 직원인 크리스티 듀와르는 CNN 관련 매체인 WAVY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뻔 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인 드웨인 크래독(40)은 군인 출신 엔지니어로 버지니아비치 시청에서 약 15년 동안 일하다가 지난 1일 상사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듀와르는 WAVY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때,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때문에 나는 소리로 생각하고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나도 동료들을 위해 뛰었다”고 말했다.

듀와르는 순간 콕스를 봤다. 콕스는 듀



미국 버지니아비치 시청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던 라이언 키스 콕스. ©버지니아비치 시청

와르에게 한 동료의 사무실 안쪽에 숨으라고 말해주었다고 한다. 듀와르는 그에게 사무실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같이 숨자고 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이것이 듀와르가 콕스를 본 마지막이 된 것이다. 이후 듀와르 일행은 문을 잠근 후, 캐비닛 등을 이용해 문을 막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듀와르는 “그는 영웅이다. 전에도 그는 이 땅을 걸어다니는 수호천사였다. 이렇게 빨리 떠나선 안되는 사람”이라며 안타



미 동부 버지니아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 ©미국 버지니아비치 시

까워했다.

노퍽에 위치한 페이스월드 미니스트리스(Faith World Ministries)의 애즈카엘 월리암스 사제는 버지니아 파일럿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 년 동안 콕스와 그의 가족들을 알고 지냈다. 콕스의 아버지는 버지니아비치 뉴호프침례교회 목회자이며, 콕스는 성가대로 활동했다”고 했다.

윌리암스 사제는 “그의 가족들은 매우 가까웠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교계의 본이 되었다. 이 상실의 시간, 우리는 콕스의 가정 뿐 아니라 비극적 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과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한다. 콕스 목사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전했다.

콕스의 형인 어빈은 “버지니아비치의 총격 사건으로 나의 동생을 잃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동생의 아름다운 친양을 들을 수 없게 됐다. 동생을 정말 사랑했고, 전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의 따뜻한 영혼이 그리울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듀와르는 버지니아 파일럿과의 인터뷰에서 총격이 발생한 날 밤 콕스의 부모님이 와서 그들에게 콕스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다 죽었는지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듀와르는 “우리는 콕스를 젠틀맨이라고 불렀다. 그는 매우 친절했으며, 가끔씩 힘이 들 때마다 암아주기도 했다. 또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항상 집 앞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이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성고등부 예배 오전 8:40

### 가디나 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들어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 대홍장로교회

파송기자,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30 이호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이야 함과 같으리라(롬 10:15)

###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 주비전교회

하나님이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 www.sbhvisions.org

주일예배 오전 9:3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예배 오전 9:00 윤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교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 715-9902

주일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9: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서 드리집으로 오명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예배 오전 9:00 윤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gmail.com

##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515-9191, 995-5351 john.m9191@yahoo.com

민경업 담임목사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교상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교) 오전 9:00 주일예배 오후 9:30, 11:30  
주일학교 오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전년부 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 691-0691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30

###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로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 남가주새소망교회

예수 성령으로 새롭 밭에 달리는 예수그리고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동체부, 유초등부  
수요새벽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아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호** 담임목사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외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am  
(유이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분  
주요예배 오후 7: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일문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성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회 오전 6시(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의 기쁨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람학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부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회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어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부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부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hanmail.net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UNG**  
**Inland Church**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기독일보**

## 20년 동안 레즈비언으로 살았던 그녀 “나의 긴 방황을 끝내준 것은 교회”



지난달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자유의 행진에 참석한 자넷 보이네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오랫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온 한 여성의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최근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자넷 보이네스(Janet Boynes)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최근 워싱턴 실버 커튼 앞에서 진행된 ‘자유의 행진’ 행사에 참석한 수백 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했다.

그녀는 “약 20년 동안 레즈비언으로 살았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난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는 질문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모두 공동체나 단체 혹은 교회에 속하길 원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이는 이름표들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성인이 되었을 때, 심지어 어릴 때에도 우리의 행동과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알지 못했고, 스스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4명의 배다른 아버지로부터 총 7명의 형제를 둔 그녀의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그녀를 길러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어머니를 육체적으로 학대했다. 아버지의 학대는 어머니를 통해 그녀에게도 이어졌다. 그녀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서 자란 나 역시 동일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삶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

교회를 떠난 지 14년 후, 새벽 3시에 한식료품점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기독교인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녀를 자신의 교회로 초대했다. 몇 주 후, 그녀는 다시 주님을 찾았다. 교인들은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환영해주었다. 그녀는 “그들은 나를 겉모습이 아닌 속부터 사랑해주었다”고 말했다. 교인 2명이 그녀를 그들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이 사랑을 알게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나의 긴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교회였다. 하나님께서 절대 수치심과 잘못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증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그래미 3관왕 찬스더래퍼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지난 2017년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신인상과 함께 3관왕을 차지한 찬스더래퍼(Chance the Rapper)가 최근 ‘토니’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이모 토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며 신장 이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우리 가족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며 기도 요청을 했다. 또 “기도자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그의 타이밍은 완벽하다”고 했다.

찬스더래퍼가 그의 기독교 신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첫 안식 휴가 기간을 가지며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 굉장히 낮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기간을 가지려 간다”고 했다.

당시 그는 “우리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찬스더래퍼(Chance the Rapper)의 Coloring Book 앨범 커버.

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얼마나 그의 말씀을 보는지 모른다”며 “나는 분명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했다.

한편 찬스 더래퍼의 행보는 래퍼 카니에 웨스트(Kanye West)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의 정체성’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의 기자

## “북한, 언론의 자유 없는 국가”

### 프리덤하우스, ‘2019 자유와 언론’ 보고서 발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없는 국가로 지목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국제인권 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5일 ‘2019년 자유와 언론: 악화일로’(Freedom and the Media 2019: A Downward Spiral)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0점을 받아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 195개국 및 14개 자치령 내 언론의 자유를 ‘

강혜진 기자

## 예수님과 한 편 먹기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매주 수요일 저녁, 성경 면방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나라 말에 많이 나오는 '먹는다'는 표현이 참으로 다양함에 새삼 놀라고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나이 먹는다, 결심을 세우는 것도 마음 먹는다는 한국적 표현을 주목한 이어령 박사의 강의도 흥미로웠지만 지난 주 성찬식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더욱 '먹는다'는 표현이 지극히 성경적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에 기인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성찬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한낱 예식으로만 남아있는 기독교의 의식이 아니라, 매일 매일 주님과의 동행을 촉구하고, 그 은혜를 상기하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사랑을 상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결혼 예식을 행한다면 어떨까요? 서먹한 면도 있겠지만 아마 부부의 사랑을 유지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듯이, 성찬식은 분명히 우리가 맹각하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억을 드는 수준의 상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지대한 효과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찬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병 들고 약한 자들, 심지어 잡자는 자들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성찬식에 임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전 11장)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주님의 살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주님과 아주 친근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하는 실질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기도가 식어갈 때 다시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한 편 먹는다'는 차원에서 이 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성찬식에 임하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메말라 갈 때,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삶의 이유이 식어질 때, 성찬식에 오셔서 떡과 잔을 받아먹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삶의 활력이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찬식을 사도하시고 예수님과 '한 편 먹기' 위해서 세례받는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힘들지 않습니다!

민 경 엽 목사  
나침반교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정이 평범한 사람인 것에 틀림 없습니다. 그는 약한 모습을 많이 노출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실 때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거절하기도 했고,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단 한 번도 일으키지 못했고 신유의 은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고 확실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였고 심지어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그는 한없이 나약해지기도 하였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렘12:5). 이 말씀을 풀어서 쓰면 이런

뜻입니다. "너, 너무 나약하구나. 너, 이것도 못 이기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은 어떻게 이기겠니? 지금 이 정도로 힘들다고 투덜댄다면 이후에 더 어려운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 모양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납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 제 입에 어느 순간부터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달고 다니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기

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종종 훈련소 조교 같으십니다. 훈련 받을 때 조교는 물었습니다. "힘듭니까?" 그럴 때 "네, 힘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큰 일 납니다. 힘들다고 하면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물습니다. "힘듭니까?" 그러면 무조건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복창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숙한 조교와 같으셔서 우리의 엄살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1999년 3월 나침반교회의 사역에 뛰어든 이후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어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탄스럽고, 그간 함께 해주신 교수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 동성애 관련 설교한 분당우리교회 부목사에게

이 명 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19년 6월 5일 분당우리교회 부목사의 설교가 문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설교에 대한 치리와 징계는 있어야 한다.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대연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신령한 가치와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며, 실족하기도 한다. 영적 분별력 없이 한 설교는 향방을 모르고 마구 총을 쏘는 것과 같다. 많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마귀가 틈 타도록 울타리를 무너뜨린 것과 같다. 말은 쏟아진 물과 같다.

특히나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그 렇고 요즘처럼 영상으로 파급력이 큰 시대는 더욱 더 그렇다. 목사는 설교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사과했다고 결과가 없어지지 않는다. 사과의 말로 덮어버리기에는 목사의 설교이기에 치리를 통한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몇 가지 짚고 싶은 것들이 있다. 먼저, 반동성애 운동은 하는 분들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수님도 죄지은 예인의 죄를 나무라시고 다시 짓지 말라고 하셨지, 돌로 치지 않으셨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분명히 전해주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차를 막아선 행동이 불쾌하다는 언급에 대해 말하고 싶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하지만, 차를 막아선 것은 음란한 행동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간절한 심정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 당시에 그 방법 밖에 다

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은 절박한 상태에서 온 몸으로 막아선 것이다. 그 간절한 심정을 무식하고 무례하다고 판단하는 일방적인 비판을 수용하기 힘들다. 막달라 마리아가 상식에 벗어나 행동으로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행위를 보고 비판한 제자의 목소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차를 막아선 분의 몸도 향유만큼이나 귀중한 것이다.

셋째, 퀴어축제에 반대하여 나간 분들 모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뜨겁다 뜨거운 아스파트에 무릎을 꿇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누추한 차림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묻고 싶다. 삽발과 헐서가 너무 세련되지 못한 것인가? 삽발로 헌신하는 동역자의 모습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삽발을 한 분들 모두 바보가 아니다. 삽발 후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다.

셋째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음란한 동성애 문화를 막아 보겠다고 새벽부터 금식하며 행사장에 모여 기도하는 행동들이 무식해 보이지는 묻고 싶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는지 묻고 싶다. 좀 더 세련된 저항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었으며 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진영도 어

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애가 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장에서 부딪쳐가며 조금씩 대응방법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 영국교회와 서구교회와 미국교회가 술집과 카페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꾼대라는 말이 들기 싫어 점잖게 그러지 말라고 성명서만 내고 물러서 있었던 영국교회의 현실을 보라. 노방전도를 하는 전도자를 수갑에 채워 연행해 간다. 동성애자들을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미국과 캐나다교회의 몰락을 보라. 동성애를 받아드린 호주를 보라. 우리민족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해주었던 복음전파의 모체들이 나라들이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소금의 맛을 잊고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다.

대세가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동성애자들은 전체 인구의 3%도 되지 않는다. 설사 97%가 동성애를 찬성하더라도 말씀에 따라 반대는 것이 성도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군중의 목소리에 눌려 무죄한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빌라도나 군중의 눈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분별없는 다수의 눈치를 보며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스스로 자숙을 선언하고 근신하는 선에서 해결하기에 너무 멀리 나가버렸다. 교단의 엄중한 치리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믿고 신뢰하던 교회의 목사이기에 더 화가 났지만 해당 목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접고 그를 위해 기도 한다. 문제의 목사는 치리에 응하고 겸손하게 징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시고, 성령에 인도함을 받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길 바란다.

## 데이비스 한인교회

## 담임목사 청빙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비스 한인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1982년 대학원생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교회로써 제자훈련과 세계선교를 꿈꾸며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가지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 자격 (Qualification)

- 미국내 복음주의적 정규신학대학원 (M. Div or Th. M 목회학 석사 혹은 신학석사) 이상을 졸업하신 분.
- 교회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으신 분.
- 영어권 사역의 중요성과 미국 문화에 익숙하고 이중 언어가 능숙하고 설교가 가능하신 분.

## ■ 지원서류 (Application Package)

- 이력서 (사진포함)  
본인 / 가족소개서와 목회비전서 (한/영)  
학위증명서와 안수증명서  
추천서 3부 (목사님 2부, 교인 1부)  
최근 섬기는 교회주보와 설교말씀 (영어와 한어 각각 1개씩)

## ■ 제출처

온라인: <http://www.daviskoreanchurch.org/dkcpsc>  
우편: Davis Korean Church  
ATTN: Sr. Pastor Search Committee  
603 L st. Davis, CA 95616

## ■ 제출기한 (Due date)

2019년 7월 20일(토)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세요. e-mail: [dkcpsc@gmail.com](mailto:dkcpsc@gmail.com)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속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Back-to-Back Champion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 (2nd)



T:(562) 383-3566

##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 담임목사 청빙

저희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된 이후 평신도 사역을 극대화 하는 교회, 새로운 예배의 간증을 꾀하는 교회, 소그룹과 양육 중심의 교회, 1세와 2세가 함께 세워 나가는 교회, 이민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의 목회상을 가진 이민교회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 비전에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나갈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자격

- 학력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신 분
- 경력 :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당회원) 3년 이상 경력하신 분
- 소속 : PCUSA 소속 또는 개혁교단 소속으로 PCUSA 가입 가능하신 분
- 언어 : 영어와 한국어로 설교와 소통이 가능하신 분
- 신분 :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제한사항 : 본 교회의 현재 사역자나 또는 지난 7년내에 사역하셨던 목사님들은 청빙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제출서류

- 이력서 Personal Information Form (PIF, Revised 3/2016, 개인정보양식)을 다운받아 영문 또는 한글로 작성 (PCUSA website <https://oga.pcusa.org>)
- 추천서 2통(봉인)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사본
- 목회계획서
- 최근 6개월 내 설교 2회분 (USB 또는 CD)
- 본인사진

## 제출마감 2019년 6월 11일 (우편소인)

## 보내실곳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Attn: KCPC PNC (Pastor Nominating Committee)

2534 Duluth Hwy, Duluth GA 30097

## 문의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청빙위원장

PCUSA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Ministry Information Form (사역정보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IF와 PIF 양식은 본교회 청빙안내 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yunhap.org](http://www.yunhap.org)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제단/직접제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정은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앤솔브,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령,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 1,000원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하시는 분

■ 드럼 연주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4시간 사고发生的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문의 :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해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국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캇 킴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Dietary Supplement

# 대마 햄프 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신이 내린 항암식물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암 전이를 예방해주세요  
헬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 암 전이는 질병을 사용하는 영양한 자연치료제입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간단나이트를 저작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난소암, 치료와 노화방지  
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  
력 추천하는 항암 수송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 중독성이 있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a성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햄프씨드는 미국 태입자에서 슈퍼푸드로  
선정

## 시애틀연합장로교회 4대 심우진 목사 위임

“아름다운 전통 이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되겠다”

시애틀연합장로교회는 지난 9일 위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심우진 목사를 교회 제 4대 목사로 위임했다. 이날 위임예배에는 미국 장로교 (PCUSA) 임원들과 미국장로교 서북미한인교회협의회(KPC) 임원들이 참석해 심우진 목사의 위임과 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장윤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위임예배는 김진석 목사(미국장로교 노스퓨젯사운드 노회총무)의 사죄의 기도, 강세홍 장로(시애틀연합장로교회)의 성경봉독, 조문길 목사(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의 설교로 이어갔고, 이어진 위임식에서는 장윤기 목사의 회중에게 묻는 질문과, 케런 버틀러 장로의 목사위임 기도와 목사위임선포, 김병규 목사(주님의 영광교회)의 목사권면, 코리스컬저홀의 교우권면과 심우진 목사의 축도로 위임식을 마쳤다.

심우진 목사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가진 교회로 부임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사역을 이어받는 심우진 목사님 역시 하나님

밝혔다.

장윤기 목사는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는 39년 된 교회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와 전통을 바탕으로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왔다”며 “모든 교우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지키며 사랑으로 헌신했는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심우진 목사님을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윤기 목사는 2달 동안 심우진 목사와 함께 사역하다가 오는 7월 말 은퇴할 예정이다.

이날 위임예배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교회”(시편 126: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조문길 목사는 “장윤기 목사님이 이곳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13년 동안 주님의 봄된 교회를 잘 섬겨오셨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심우진 목사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게 됐다”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가고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 목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사역을 이어받는 심우진 목사님 역시 하나님



지난 9일(주일)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심우진 목사 위임감사예배가 열렸다.

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목회자와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규 목사는 목사 권면에서 “목회를 하다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목회자가 되라”며 “무슨 일을 만나면 ‘왜(Why)’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What) 하나님께 할 것인가’를 묻는 목회자가 되라”고 전했다.

코리스컬저홀 장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는 심 목사 혼자의 사역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어느 곳

에서든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며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한편 시애틀연합장로교회 4대 목사로 위임 받은 심우진 목사는 한국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학부와 신대원을 마치고 2004년 아틀란타로 도미해 에모리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마치고 아틀란타 콜롬비아 신학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였던 고

정인수 목사 소천 후 임시당회장을 맡아 2년 동안 사역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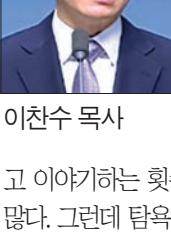
1979에 설립된 시애틀연합장로교회는 1대 박영희 목사, 2대 변인복 목사에 이어 3대 장윤기 목사가 사역해왔다. 장윤기 목사는 1986년 미국장로교(PCUS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바이셀리아 한인장로교회, 로체스터 한인장로교회, 애나하임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였고, 전국한인교회총회(NCKPC, PCUSA) 총회장, 북방 선교회, 등대복지회 USA 회장으로 봉사한 바 있다.

풀 원 기자

[1면 “분당우리교회 부목사 설교 논란…” 이어]

## 이찬수 목사 분당 우리교회 동성애 설교 논란

### “설교 때 표현 다듬지 못해 죄송”



이찬수 목사

러누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동성애라는 감정을 사실 저도 아무리 상상해도 이해는 잘 안 간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것 하나뿐이다.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그 끝이 동성애 아닌가. 왜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일까? 행복하지 못해서이지 않을까.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위로가 된 것을 찾다가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닐까, 라고 밖에 상상이 솔직히 안 된다”고 했다.

부목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려면 동성애를 털어막는 것보다 우리 일상, 우리의 가치관, 산체, 건강한 가정상, 건강한 부부관계 여기서부터 디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결국 희망은 복음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말로써 그 사람들을 막으면서 너 그러면 지옥간다라고 하는 저주가 아니고 정상적이고도 너무 행복한 부부관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의 바로 그대로의 성, 행복한 가정생활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크리스천의 삶, 이것이 대안이고 희망이

라고 믿는다”며 “이제는 지적과 저주가 아니고 삶으로써 샘플을 보여주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시는 게 아니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같은 설교 내용이 알려지자 “이는 명백한 성경말씀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며, 세상 끝까지 말하면서 본인은 맹목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반기독교여론에 편승했다.” “대세가 이미 넘어갔고, 동성애를 비난하는 것이 판대들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동성애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동성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매우 협소하고 동성애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심히 걱정”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는 사이 이 부목사는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부족한 제가 전했던 말씀 나눔과 적용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온 마음을 바쳐 눈물을 흘려 애쓰고 계신 분들에게 큰 낙심과 좌

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며 “모두 다 저의 지혜 없음과 표현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혀 이런 의도의 말이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구나. 이건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 잘못이다”라고 절감한다”면서 “이건 부족한 종이 너무 큰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혼자 애를 쓰다가 표현 과정에서 제 부족함이 드러난 것 뿐”이라고 했다.

부목사는 “저는 종신대학교를 졸업하고,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입장을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목사의 설교라는 것이 개인의 묵상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성도님들께는 목사가 어떤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을 한 것인지 를 당연히 아실 수 없기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만 들으면 제가 생각했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 지적해주셨던 분들의 말씀들은 제가 의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그것도 저의 표현의 부족함의 결과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혀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

도하며 애쓰시는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동참하시는 못 할 지언정, 힘을 빼지게 해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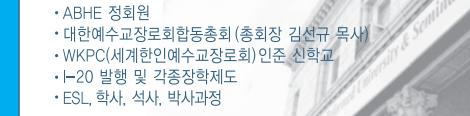
이 글에 댓글을 단 이찬수 목사는 “어제와 오늘, (해당 설교를 한 부목사와)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그 설교에서 하고자 했던 ‘진의’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그런 의미로 설교 한 것이 아닌데, 지혜롭게 표현하지 못하여 많은 분들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한 것 같다고 고로워 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가까이서 지켜본 (해당 설교를 한) 목사님은 순수하고 복음에 대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둘러 댈 사람 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이 절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구현되는 일이 되기를 기도한다. 담임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주님께서 모든 분들께 살롬을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2019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구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 기독교학회(MDiv),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이주 및 한인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교호 박사 T(626)227-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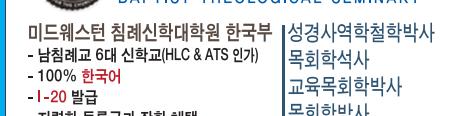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id

## PCUSA 한인총회 신임 임원구성 “구원선 역할” 강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가 최근 신임임원 구성을 완료하고 PCUSA교단의 구명선 역할을 수행해 나갈 각오를 밝혔다.

NCKPC의 올 회기 임원은 총회장 최병호 목사를 비롯 △차기총회장 이재호 목사 △평신도 부총회장 양정아 장로 △사무총장 박성주 목사 △서기 박근범 목사 △회계 김일 장로 △협동총무 박시문 목사 △EM 총무 서용정 목사 △여선교회 대표 양혜란 장로 △정책자문위원장 이영길 목사 △CCKAP 대표 김삼영 목사 △한인목회실 총무 조문길 목사 등으로 구성됐다. 서기와 회계는 연임됐으며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직책인 정책자문위원장과 CCKAP 대표, 한인목회실 총무 등의 직책도 기존의 명단을 유지했다.

이번 회기 NCKPC는 신임 총회장 최병호 목사가 PCUSA 내 ‘구명선’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교단 내 영적 중심을 잡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병호 목사는 신임 임원구성 사실을 알리며 미주 전체 회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함께 공유했다. 최병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48회 총회

호 목사는 “6월 성령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모든 회원교회가 되시길 기도드린다”면서 “신임 총회장으로 비전을 나누며 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병호 목사는 NCKPC의 첫번째 역할과 관련, “미국장로교단의 구원선, 구명정이 되어 노아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가 사람과 피조물을 살리는 구원선이 되었듯 오늘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NCKPC가 구원선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병호 목사는 NCKPC가

한인교회의 권익을 추구하고 교단의 한인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인종 코스와 연합해 소수인종교회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NCKPC가 교단 안에서 복음주의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인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영훈구원의 열정이 교단의 영적인 대부흥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단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영적인 대각성과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 이찬수 목사 “동성애연구소 세워 다음세대 교육하고 싶어”

부목사 설교 논란 후 9일 주일예배 설교서 언급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9일 주일예배를 통해 동성애연구소를 만들어 동성애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다음세대에 동성애에 대해 교육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진영 목사의 동성애 관련 설교로 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이날 이 목사의 설교는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모아왔다.

이 목사는 설교 전반부에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사례를 들면서 동성애연구소에 대해 언급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1996년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했는데

그 결과 68%가 반대했지만, 19년이 지난 2015년에는 찬성이 60%로 역전됐다. 2015년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해이기도 하다.

이 목사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하며 이러한 역전현상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구세대가 사라지고 찬성하는 젊은세대가 나타나면서 생긴 문제였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는 비켜갈 수 있겠는가?” 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목사는 이어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동성애에 지금의 세대는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우리 세대

가 죽고 없어지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미국처럼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뛰어죽제 전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지난 주 화요일 아침에 전체 교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거론했고, 할 수 있다면 분당우리교회가 이러한 시대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동성애연구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분석이 되고, 그 분석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또 다음세대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해 정확하게 교육하면 좋겠다”고 동성애연구소 설립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순장반에서도 이런 기도제목을 나누었다”면서 여러분도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

이 목사는 “연구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월이 흘러도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 세대에게 분별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19년 학위수여식

###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이사진 교수진 및 졸업생 일동은 본교 학위수여식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졸업하는 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학위수여자

M.Div. | 조현숙, 최영호, 박재민, 송해민

일시: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마가교회 (마음이 가난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19년 여름학기 학생모집

### 참, (진리의길) 앓,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 신학대학교

#### 신학과(B.A) | 126학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 신학대학원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개강일자

6월 20일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 로마 가톨릭, 주기도문 일부 변경

로마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일부 변경을 공식 허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에 허용한 주기도문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이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구약 구절과 유대교 문서들도 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약성경에서도 ‘시험’은 제자들의 삶의 피할 수 없는 특성이었다. 예수님도 시험 가운데 계셨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단련하시는는데,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으로 인도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이는 또 초대교회의 간청이었다. 신약으로 인한 팝박이 일상적이었던 당시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단이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도 맞다.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용례와 히브리어 단어를 고려했을 때, 주기도문의 시험을 사단의 시험으로만 보는 것은 좀은 이해이다. 사단의 시험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정말 인간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의 영문이 기존 ‘Lead us not into temptation’에서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시험은 고난 의미... 변경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나 장신대학교 김철홍 교수(신약학)는 “주기도문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기 보다 고난과 팔박과 같은 ‘painful trial’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하나님도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 진흙과 같은 우리를 이롭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톨릭에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와 ‘다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동일한 선상에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래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주기도문을 변경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황 프란치스코. ©http://w2.vatican.va

## “北, 보릿고개로 극심한 식량난” 종교인들, 인도적 지원 호소

인도주의, 생명의 위협 받을 때 지원 원칙  
정부 지원 결정 환영, 하지만 턱없이 부족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흔쾌히 수용을

김명혁·박경조·박종화 목사(기독교)를 비롯해, 법륜(불교), 김홍진(천주교), 김대선(원불교), 박남수(천도교) 등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인도주의는 정치, 이념, 사상, 종교, 믿음, 인종, 성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록 적더라도 인도주의 정신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와 정치적 관점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춘궁기 보릿고개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감자를 수확하는 7월까지 북한 아이들은 먹을 식량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 발표된 유엔식량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공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인 1천10만여

명이 식량 부족에 처해 있고, 예상 식량 부족액은 무려 1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세계식량계획(WFP)은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대북제재와 별개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종교인들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존엄을 보호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굶주림을 외면하고 생명의 위협을 방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어렵게 찾아온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지속되고 굳건한 평화 정착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원해 왔다”며 “이에 우리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자 한다. 극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한반도의 ‘쌀독’이 터져 쏟아지고 있다.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각계에 다음 내용을 촉구했다.

하나.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인도적 지원은 경제 제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묶여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전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나. 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돋기 위해 국제기구의 사업에 800만 달러(약 94억 7천만원) 지원을 결정

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북한은 인도주의와 동포애로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 흔쾌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유엔 식량보고서에 의거해서 굶주리는 북한 주민을 돋기 위한 대북 식량 지원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종교인들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대북 지원과 북한동포 돋기운동을 했던 5대 종단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캠페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왔다.

이대웅 기자

## 본사 주최 일일 서부 추억여행 “최고의 명품여행이었다” 호평

### 포인트 로마와 코로라도 섬, 기차 여행 등 다양한 여행 패키지

기독일보와 여행사 코러스 투어 클럽이 마련한 캘리포니아 서부 추억여행이 “최고의 명품 여행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포인트 로마와 코로라도 섬, 고급 일식 뷔페, 기차 여행, 페리 탑승 등 다양한 여행 패키지가 모두 포함된 99달라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이번 여행은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으며, ‘다시 한번 여행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이번 일일 관광에는 마가교회(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와 나눔과 섬김의 교회, 기독일보 광고를 보고 신청한 90여 명의 인원이 2대의 고급 리무진 버스에 탑승

해 여행에 참여했다.

오전 8시 30분 유니온 역에 도착한 일행은 기차를 타고 오션사이드까지 바닷길을 달리면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탄성을 자아냈다. 오션사이드를 따라가며 보이는 바다 풍경은 철도 여행의 진수를 보일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다. 점심으로 제공된 일식 뷔페는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맛있는 랩스터와 쉽게 맛볼 수 없는 산해진미까지 더해져 더욱 매력적인 여행을 만들었다. 포인트 로마 등 대는 점마다의 개성과 감성을 담은 화려한 자연 경관이 산재한 곳으로 발길과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감탄사를 연발케 했다.

이후 고급 리무진 버스에 올라 샌디에고 항만에 도착한 일행은 페리에 탑승해 시원하고 넓게 트인 바다를 가슴에 담으

며 미국 10대 해변 중 하나인 코로나도 섬 비치로 이동했다. 시원하게 트인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 비치에 도착한 일행은 오랜 시간이 담긴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역사적인 호텔 델 코로나도를 둘러보며 오랜만에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여행에 참가한 성도들은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단합되고 오랜만에 서로 마음을 나누며 소통의장을 가질 수 있었다”며 “다음 여행에는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가는 동안 짧은 간증이나 설교 시간을 넣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고 싶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기독일보는 이번 여행 참석자들의 큰 호응에 따라 6월과 7월에 한 차례씩 같은 코스로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행 참가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기독일보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213)739-0403

213)434-1170

이메일: chdailyla@gmail.com

김동욱 기자



기독일보 주최 캘리포니아 서부 일일 관광



## 기독일보 7월 일일관광

### 기차여행 라호야 코우부 바다사자 샌디에고 코로나도 섬

출발: 7월 13일(토)

\$99

모 \* 대명 버스, 일식 뷔페,  
함 \* 기자 요금, 페리 요금.

성지 입장료, 및 모든 팀은  
불포함

주어진 미션 수행 [부상 : 다음 여행 무료]

샌디에고로 이동, 항만 관광 후

페리 탑승

코로나도 섬으로 이동

낭만이 있는 호텔 델 코로나도 탐방에 이어

기독일보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박  
11일

#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0일(목) 10박 11일
대 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접수마감	2019년 7월 15일(월) 접수시 \$500 디파짓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회 비	\$2,5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회비는 3회 분할 은행구좌로 납부

은행  
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넘버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1회▶7월 30일까지 \$500, 2회▶8월 30일까지 \$500, 3회▶출발 7일전 \$1,000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 행	상 세 일 정	교통편 및 식사
1일	이스라엘 도착	항공, 기내식
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둑, 주기도문 교회, 베트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젯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훈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달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례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쿰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툰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랴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화,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호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랴	전용차량, 현지식
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아들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일	휴식	전용차량, 현지식
11일	본국으로 출발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213)330-511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